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6-8 / 새찬송가 543 (통일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납니다. 의심은 누룩과 곰팡이 같아서 조금만 생겨나도 믿음 전체를 다 파괴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의심은 어디에서 올까요

의심의 근원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계12:9).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와 악한 영들은 크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계12:12).

마귀와 귀신들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여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서 마귀와 귀신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엡6:12).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사에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을 쫓아내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합니다.

2. 욕심과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복잡함과 불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게 된 것은 욕심과 죄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욕심과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의 복잡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시131:2).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시51:17). 히스기야도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왕하20:1-6).

상한 심령과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마5:8).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게 되는 축복을 말하며 이런 자는 기도의 확신이 저절로 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3. 의심해야 할 것과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해야 할 것 즉 마귀의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비추어주시길 간구하며, 100%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마귀의 말’을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아야 합니다(눅11:35).

또 마귀에게 넘어가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 침략주의자, 공산주의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온갖 종류의 상대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의 말은 철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인간의 헛된 사상과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의심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고후 10:4,5)!

<적용&실천>

나는 내 앞의 문제와 변하지 않는 상황에 마음이 요동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먼저 애통하며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